opusdei.org

'하람베 Harambee 2006' 에 관한 기자회견

“아프리카를 위해 모두가 하나가 되다” 프로젝트 “하람베 Harambee”의 모토이다. 2002년 오프스 데이 창설자 성 호세마리아 시성식을 계기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네 개의 새로운 아프리카 개발계획으로 이루어져 있다.

2006-3-31

오늘 기자 회견에서는 “하람베 Harambee” 프로젝트를 위한 국제적인 기금 창설 및 네 개의 새로운 사업계획이 발표되었다.

1) 수단 Sudan: 내전으로 남쪽에서 피난 온 여성 및 청소년을 위한 전문교육.

2) 케냐 Kenya: 초, 중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교육 연수.

3) 마다가스카르 Madagascar: 대대로 내려오는 장인(匠人)들을 위한 직업 교육.

4) 콩고 Congo: 수도 킨차샤 교외에 아동과 여성을 위한 보건소 건립.

“하람베 Harambee”의 담당자인 데마르키 (De Marchi) 씨는 “2006년 캠

페인의 목적은 아프리카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것이다" 라고 강조하고, "새로운 네 개의 사업이 사막에 네 방울의 물방울에 불과하지만, 기존에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주는 청량제가 될 것" 이라고 부언하였다.

새로운 사업은 교황 베네딕토 16세 최신 회칙 「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」 Deus Caritas Est 에 따른 조치라고 볼 수 있다.

이번 기자회견에는 '하람베 2006년' 프로젝트의 기부금을 받을 콩고와 수단 대표도 참석하였다. 콩고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몽고 씨는 현재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하고, 킨차샤 교외에 약 오십만 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보고하였다.

이에 따라 킨차샤 교외 지역은 어느 곳보다 원조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

며, “콩고의 어머니들은 콩고 발전에 꼭 필요한 존재로서 그녀들 손에서 자녀들의 첫 교육이 실시되며 그녀들을 통해 아프리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우골리노 수녀는 수단에서 하고있는 일에 대해 보고하였다. 수단에서 여성들을 위한 사회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녀는 “수년간 수단에서 일하면서 배운 것은 아프리카 여성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기보다 그녀들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었다”라고 술회하였다.

로마시 시장인 월터 벨트로니는 ‘하람베’ 프로젝트 주최측에 편지를 보내 “아프리카의 비극을 숨기려고 하기보다는 모두가 이를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, 인류의 귀중한 자산인 아프리카의 풍요로움을 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와의 커

뮤니케이션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.

“Communicating Africa” 상의 기본 철학은 ‘아프리카의 문제들을 숨기지 않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를 보여주는 것’ 이라고 담당자 디에고 콘트레라스는 말했다.

‘하람베’는 로마에 본부를 둔 ICU 산하 NGO로서 1966년부터 세계 각국의 지역 발전을 위해 일 해온 단체이다.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harambe-harambee-2006-e-gwanhan-gijahoegyeon/ (2026-1-15)